

공연, 亞·유럽 공동제작·유통 전시, 각계 지성들 함께 기획

예술감독들이 밝힌 문화전당 콘텐츠 청사진

2015년 개관하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아시아 예술극장(이하 예술극장)에 유럽, 아시아를 대표하는 극장, 공연단체 등이 참여해 작품을 공동 제작하고 유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아시아 하이웨이’(Asia hiway)가 도입된다. 어린이 문화원, 문화창조원 등 전시·창작 공간에서는 국내외 인문학자, 과학자, 엔지니어 등이 참여하는 ‘집합

지성’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신임 김성희 문화전당 공연예술감독과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은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전당 공연과 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공동제작·유통 네트워크 구축=김성희 공연예술감독은 예술극장의 기본 방향을 서구의 모방에서 벗어나

아시아적 가치를 표현하고 창작 중심의 현대 예술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시아예술극장에 올려질 공연 분야도 연극과 무용, 오페라에서 클래식, 재즈, 월드, 팝, 비디오, 영화,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등 현대 예술이 망라된다. 이들 예술영역은 각각 개관·시즌·페스티벌, 광주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선보이게 된다. 이들 예술영역에 담기는 아시아적 가치를 도출하고 제작 인프라와 유통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통시스템의 핵심은 해외 유명 극장과 아트센터를 참여시키는 등 공동제작·유통 방식이다. 이른바 광주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하이웨이 시스템으로 중국 아트센터, 대만 페스티벌, 인도 아트센터, 일본 극장, 말레이시아 페스티벌과 연계해 작품을 만들고 서로 교환하는 유통 시스템을 추진한다.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공동창작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포석이다.

예술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건축가, 영화감독, 도시학자 등이 콘텐츠 제작자로 참여한다. 이들이 문화전당에 모여 융합과 통섭을 토대로 새로운 전시와 기획을 선보이는 ‘집합지성’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전시주제인 ‘아시아의 도시들’ ‘유라시아 네트워크’ ‘생명과 우주’ ‘토포스와 이야기’ 등을 구성하는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게 된다. 기존의 전시가 유물,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었다면 문화전당의 전시는 시간·공간·사물·이야기로 표현되는 ‘책’과 같고 그 안에 미술이 포함된다는 것이 이 감독의 생각이다. 광주·전남 출신 인물을 사건 중심으로 배치하고 생명공학이나 디지털 정보공학, 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자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는 국내외 전문가와 작가가 협업으로 진행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에서 제작단을 꾸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시아 예술극장 공동제작·유통 네트워크(아시아 하이웨이) 개념도



12일 광주 동구 금남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에서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감독 위촉 기자회견에서 김성희 공연예술감독(왼쪽)과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이 콘텐츠 제작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콘텐츠 방향제시 … 다소 모호 할 수도”

이영철 전시예술감독

최근 지역문화단체의 위촉철회 요구에 직면한 이영철 전시예술감독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에 놓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문화전당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위촉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는 데, 사실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작하느냐라는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아직 콘텐츠는 만들지도 않았다. 당연히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전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제작할 것인가 ▲문화전당은 ‘집합 지성’의 성전이자 ‘아시

아의 집현전’이 될 것이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9월부터 인문학자,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건축가, 영화감독, 도시학자 등과 함께 콘텐츠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당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은 없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문화전당에는 전시할 미술품 등 콜렉션이 없다. 콜렉션이 없다는 한계를 국내외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새로운 창작품과 기획으로 극복할 것이다. -지역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아시아문화개발원장으로서 업무와 약,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문화전당 콘텐츠의 기본방향과 논리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소통할 때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예술극장은 지역민 만남과 소통의 장”

김성희 공연예술 감독

김성희 공연예술 감독은 “아시아 예술극장은 ‘열린 공간’으로 예술과 만남의 광장이자 지역민과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감독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어려움 없나? ▲지난 16년 동안 컨템포러리 공연에 매진했다. 최근 5년간은 아시아 컨템포러리 작품을 제작하고 예술가를 발굴했다. 전임 프리라이젠 감독과 함께 아시아예술극장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 마스터 플랜에는 내 생각도 반영돼 있다. -아시아예술극장을 어떻게 운영하나? ▲국내 공연계의 공통적인 문제는 관객이 없고, 제작인프라, 판매·유통 망이 없다는 것이다.

예술극장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세계 각국 예술가, 단체들을 광주에 끌어들여 작품을 공동창작하고 이를 해외에 선보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서구의 모방에서 벗어나 아시아적 가치를 표현하는 창작과 제작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짤 것이다. -개관 공연작품은 어떻게 제작하나? ▲예술감독 홀로 아시아의 모든 것을 공연물에 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의 대표 큐레이터를 작품 개발에 참여시킬 것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돌 방침이다. -아시아 예술극장의 성공 가능성은? ▲서구 예술시장에서는 아시아 공연물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다.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승산이 있다.

높고 멋스럽고 눈부신 신사임당의 예술



(32) 가지와 오이

도시적 감수성으로 바라보는 자연의 풍광은 언제나 그 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움의 절정인 것 같다.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니더라도 모내기를 막 마친 후의 초록 들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지않아 장맛비가 내리면 그 무늬는 건강한 자연의 에너지로 분주해질 터다. 망망대해 같은 눈을 공중부양 하듯 휘젓고 다닐 소금쟁이들이 눈에 선하다. 이른 봄 심었던 모종들을 솟아주려 다녀온 시골 텃밭 역시 이글이글 햇빛 아래 생명의 환희로 가득했다. 김매기 전, 잡초에게도 “여기는 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며 양해 구하는 법을 농부들에게 배우며 스스로를 대견해하는 시간. 보랏빛 가지꽃, 노란색 오이꽃이 내 눈 속 깊이 들어온다.

우리 역사상 대표적인 현도양척이자 뛰어난 여류 화가이기도 했던 신사임당(1504~1551)의 그림에도 예쁜 가지와 오이그림이 있어 반가운 마음 그지없다. 산수화, 목포도도, 화조화, 초충도를 잘 그려 거의 전설적인 명성을 날렸던 사임당의 ‘가지와 곤충도’(십곡병풍 중 두 번째 폭)에



신사임당 작 '가지와 곤충도'

는 중앙의 화폭에 가지 두 그루, 가지의 양쪽에 한 마리씩 배치된 흰 나비와 빨강 나비가 날개를 펴고 땅 위에는 메뚜기 등 곤충이 어우러져 있다. 옛 그림이지만 단순한 소재,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이 지금 보아도 현대적 감각이다. 사임당의 또 다른 그림인 목포도도와 ‘초충도수병’중 가지그림은 우리나라 지폐 5만 원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임당은 율곡 이이와 같은 대학자를 아들로 두어서인지 율곡 성리학을 계승한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에 이르는 당대 학자들이 사임당 그림을 찬미하는 발문을 남기기도 했다. 율곡의 어머니라는 선입견에 크게 지배받아 오히려 올바른 평가가 흐려졌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사임당 예술이 들어다볼수록 ‘높고 멋스럽고 눈부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빛日만평

- 김중두



나, 5년동안 엄청 바빴잖아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콧물

콧속을 클린하자!

엔클 비액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만 코로 흡입하면
염막·염막 / 염막: 염막에 따라 염막을 비강점막에 2배 분배하여 염막을
비염, 염막에 따라 염막을 비강점막에 2배 분배하여 염막을

알레르기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콧물

콧속을 클린하자!

트인 비액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만 코로 흡입하면
염막·염막 / 염막: 염막에 따라 염막을 비강점막에 2배 분배하여 염막을
비염, 염막에 따라 염막을 비강점막에 2배 분배하여 염막을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 1202-0705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